

21세기 대학 교육목표, ‘창의’·‘융합’에 방점 타인 배려하고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기본

전문가 칼럼 - 융합교육



지난 4월 국제캠퍼스 피스홀에서 우리학교 국제학과,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의 핵 주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과학과 공학과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주제에 대해 각자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벌인다는 것은 대학 내에서도 흔한 경우는 아니다. 그동안 서로 소통할 기회가 적었던 사회과학과 공학 전공 학생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융합의 교육 현장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핵 주권 문제는 원자력공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적, 사회적, 국제관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공학적 지식, 혹은 사회과학적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얹힌 문제를 이해하는 인재를 말한다. 21세기 사회는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후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물 경계 허물어지고 모든 문제는 상호 연결돼

21세기 대학교육의 핵심은 ‘융합’(convergence)이다. 융합 학문이란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을 연결하는 통섭적인 연구와 교육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세계 모든 지역과 사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고,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한 분야의 협소한 전문지식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는 창의적 융합형 글로벌 인재이다. 이는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과학적 문제해결능력, 과학적 창조력을 골고루 갖추고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재를 말한다. 21세기 사회는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후 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적 융합형 인재의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사(社)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예술적 디자인에 다양한 ICT 기술들을 결합하는 과학적 창조력을 발휘한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하나의 제품은 인간의 삶과 미래 산업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됐다.

현재 한국 대학의 교육체제로는 이러한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문사회와 과학, 인문과 예술, 사회과학과 공학

된 학과 위주로 분절되어 있고 이론을 암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 교육체계를 가지고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대학 교육 체제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로 양성 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이며 유연한 교육체제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일방적 강의 위주가 아닌 문제해결형 수업형태 도입되야

세부전공별로 분절된 학과체제에서 유사 전공들을 가능한 한 하나의 단위로 묶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공 사이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유연한 대전공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경쟁력이 있다고 점쳐지는 분야의 융·복합 학과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융합형 전공을 만드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문사회와 과학, 인문과 예술, 사회과학과 공학

등 자신들이 원하는 융합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주주도적 학사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유연한 학사제도는 항상 새롭고 매우 다양한 유형들의 융합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법에서도 강의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수업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나가 실제 문제해결에 직접 적용해보는 실무형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려야 하겠다.

창의적 융합형 교육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아직 남았다. 그것은 바로 인성 교육이다. 인간성이 결여된 고도의 기술과 지식만 가진 인간들을 생산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국가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 양성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지구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1면에서 이어짐

이러한 삶의 현장과 생활공간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의식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 모두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의 표현이다.

그런데 공동체적 삶의 현장은 즐거움과 희망을 나누면서도 또 좌초하고 분노하며 환멸을 느끼면서 욕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개인들의 열정에 가득찬 행위들이 있는 삶의 모둠판이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있다. 보통 우리는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말한다. 행복한 삶은 훌륭한 삶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은 사회적 관계, 즉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행복한 더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개인과 사회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능동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의 합리적인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 평등, 정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명하였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

참여마당

안종식
기계공학 2010



가슴으로 풀어내야 할 노사갈등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서로 이계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것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일을 하는 현재에도 다른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노사의 입장 차이를 줄이면 작업의 능률이 증가하고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휴학 중에 아버지가 사장으로 계시는 기계제조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예비 노동자, 혹은 미래의 예비 고용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봤다.

회사는 직원이 몇 안 되는 작은 회사다.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피고용자 입장에서 들었던 직원들의 불만과 자식입장에서 들었던 고용주의 불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직원은 고용주의 독단적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고용주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통보했고 직원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납기를 정했다. 직원들은 과도한 작업량에 반감을 가졌다. 사장이 작업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것 역시 반발을 샀다. 또 직책에 따른 대우가 부족했다. 공장장에게도 다른 직원의 출장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고 새 일에 대한 의견 교환도 없었다. 일방적인 지시와 지적, 불통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다.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언행은 회사를 움직이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불만이었다. 직원들의 고용주를 무시하는 태도와 효율적이지 못한 작업방식은 고용주를 애타게 했다. 직원들은 노동에 대해 불만만 표현할 뿐 해결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다. 불만 사항은 고용주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후 전달되더라도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곤혹해되었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갔다.

내가 도출해 낸 제일 큰 문제는 태도였다. 고용주는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 피고용자는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해준 것, 잘한 것만 생각하여 불만은 더 커져만 갔다. 고용주는 ‘일이 없을 때도 급여를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용인은 ‘나름대로 일을 제때 끝마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불만이냐’는 입장이었다. 조금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고용인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대하고 직원들 또한 자기 일이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하면 회사가 더욱 성장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느꼈을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은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미래에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입장으로서 고용주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꾸테는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쇠사슬’이라고 했다. 노사가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 친절한 언행은 회사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

학교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해길 원하는 친구들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습니다.

Q2. 비밀 보관시 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별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성리강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전공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선택? 진로탐색과 자기성향이 맞지않아 진로선택이 고민될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성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선택? 나의 현재 실정상태가 궁금할 때 (무용,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선택?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심리적 경향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봄

선택?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Q4.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전화 / 메일 / 방문

서울경비소 02)961-0207
counsel@knu.ac.kr
첨문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5,6번방

국제영어소 031-220-2806
counsel@knu.ac.kr
첨문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17시
(12시~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